

(사)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출범 의의와 나아갈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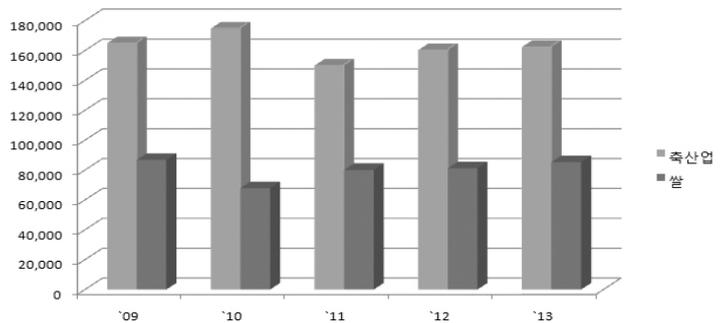


이창호
(사)축산식품안전발전
협의회장

지난 8월 13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공식적인 출발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어렵사리 설립한 협의회가 대내외에 그 시작을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였기에 필자는 매우 기뻐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고민과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현재 국내 농업생산액의 약 35%를 차지, 주식으로 여겨지던 쌀의 2배에 가까운 생산액을 기록하며 명실공히 우리나라 1차 산업 분야의 대들보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이러한 발전은 요즘말로 가히 '폭풍성장' 그 자체이다.



구분	'09	'10	'11	'12	'13
축산업	164,840	174,714	149,909	160,225	162,328
미곡	86,800	67,874	80,088	81,175	85,31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 생산액



실제로 지난 8월 18일 축산신문은 메인 기사를 통해 광복 이후 70년간 축우는 4배, 돼지는 50배, 닭은 100배 가량 사육두수가 증가했고 오는 2030년경에는 축산업 생산액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농축산업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의 문제와 함께 대부분의 지형이 평지가 아닌 굴곡진 지형이라는 점 등 환경적 요건만 가지고 따져 보더라도 국내 축산업의 성장세는 실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축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축산업·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 10여 년간 HACCP의 보편화, 친환경 및 복지축산의 대두, 축사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사례들로 대변되며 2000년대 이후 국내 축산업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더욱 민감하다.

위에 열거한 축산의 트렌드가 과연 생산성 증대, 즉 이윤과 직결되는 것인가 묻는다면 누구도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윤과 직결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이 국내 축산업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축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그에 맞는 제도와 생산 시스템 등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양적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 년간 미디어에서 공장식 축산, 일부 축산현장의 폐수, 악취 등의 실태가 집중 보도되면서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고 결국 이러한 현상은 '축산업=혐오시설'로 각인되는 한편, 축산시설에 대한 님비(NIMBY)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었다.

둘째는 축산물은 물론 모든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위생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본적인 위생관리에서 비롯되는 문제에서부터 각종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검출 관련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축산물에 있어서는 각종 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유통기한 조작, 생산지 허위표기 등이 뉴스의 단골 기사거리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먹을거리 하나하나에 '이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으로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됐든 대중과 소비자가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업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가 오랜 시간 축산업에 종사하고 또 축산관련단체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달한 결론이자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안전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업과 축산식품산업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이 균형을 이룬 선진축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생·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다진다면 축산업과 축산식품산업이 더욱 깊게 뿌리내려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출발한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가 축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서는 범국민적 안전·위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필자 역시 설립 취지에 맞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축산식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